

25. 주님을 아는 것의 필수적인 요소

누가복음 14장 25~27, 33~35 "25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4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아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둘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 셋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준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혹은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계획,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훨씬 이전에 우리들 자신을 원하십니다. 둘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왜 계시를 하시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된 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데 그 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되 하나님은 특별히 세 가지를 계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들을 계시하십니다.

첫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가장 주된 목적은 역시 우리를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

갈 수 있도록 계시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왜 계시하시는가?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도록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로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해서 열심히 함으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아 내가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래서 그가 방주를 짓기를 계획하고 방주를 짓기를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그들의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들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계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 목적에 동참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3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십니다. 가지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그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4절부터 보시죠. 6절.

“여호와께서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13절-15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이 말은 야훼라 그 말이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무슨 구절을 찾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계신 자, 야훼 하나님으로는 계시되지 않았으나 지금 내가 너에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계시한다’ 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몇 절에 있습니까?

6장 2-3절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야훼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기 이름이라는 말은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성품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제 누구죠 모세에게는 뭐라고 알리신다고요 ‘여호와로라’ 여러분 이게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지금 계시하고 계신데, 자신을 계시하신 가장 주된 목적을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된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가야 되는데, 따라 가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자원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아이를 낳는데 있어서는) 자기 아내 몸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가 알았기에 (신뢰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그가 신뢰했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이 의로 여겨졌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가 99세 100세가 되었을 때,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생산 능력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태를 여심으로 아이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컸을 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떼서 나무에다 올려놓고 불을 태워 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 연기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그렇게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재 가운데서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리사,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살리사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결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이삭을 데려다가 죽이려 하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막으셨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나? 우리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그 실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이 닥치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뭘 하셨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재를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겁니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데 지금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리십니까?

야훼 하나님으로 알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스스로 계시는 주권자, 주관자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너는 그

앞에 가서 기적을 행하라’ 그럼 바로가 듣지 않죠.

그런데 보면 이는 파리 떼가 있어서 온 전역에 파리가 가득합니다.

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가 잘못했다. 잘못했으니 보내겠다’ 그러면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일 이 맘 때면 파리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며 바로 그 ‘내일 이 맘 때’ 에 없어집니다.

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야 말로 여호와 하나님! 심지어 애굽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저희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를, 모든 피조물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모세에게 왜 이렇게 스스로 계신 주권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함에 있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계신 주권자 하나님임을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자신!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7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8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왜 그 계획을 알려시는가? 그 일로 모세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되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동역자로 삼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이 그 시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과 계획을 보이십니다.

뭐 하도록?

그 일에 동참하도록!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구절들이 그것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들을 계시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또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함 따라 제가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아무리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 목적에 자신의 삶을 들여 동참했다 할지라도,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였다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시다.

만약에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까?’ 그걸 위해서 궁리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혹은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40일 철야기도하고, 40일 금식기도하고, 그리고 밀어붙여나갔다 할지라도 그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을 것이며, 어쩌면. 자기도 목숨을 잃고,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되었을 때, 그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 목적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십니다. 이 경우에!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십니다.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 보시죠.

“16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17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18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듣지 않으면 이 표적을 나타내면 저들이 들을 것이라. 자, 그러면 너희가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리고 그에게 이런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더 알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목적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계시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셨다 할지라도,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간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한 개인이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난번에 이길수 목사님 차 사드린 사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놀랍게 채워주셔서 잘 되었다 그랬죠.

제가 어떤 분과 얘기 나누는 중에 저는 전혀 그 부분을 생각지 않았는데, 사실 의도에도 없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분과 개인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분은 또 다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니까요.

‘네가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라’ 고.

그러니까 그 분 차 사드리고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다른 분을 통해서 그게 확인 되어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인 걸 알았어요.

제가 화요일 날 광고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나님이 현금을 다 드리라고, 호주머니에 있는 것.

그래서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 광고를 듣는 순간에 ‘아마 그랬던 거 같다’ 고 그러면서 현금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38,000원인가 되요.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교회에 광고했어요.

화요모임 오시는 분들 중에 포도나무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날 어떤 분이 50,000원을 현금했더라고요.

합계가 얼마냐, 88,000원.

차를 사려면 2천만원이 필요한데 겨우 들어온 게 88,000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암담하더라고요. 하나님 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 여러분을 설득하고, 재직들을 설득하면 교회 예산으로 어떻게 하든지 할부를 해서라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싫으면서도 따라오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제가 여기서 주일날 낮에 광고할 때 뭘 느낀 줄 아세요?

분위기가 싸늘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일이야 본인 담당하는 교회도 있는데, 왜 우리가 나서서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건축도 앞두고 있는데’ 뭐 이런 분위기 같았어요. 그러나 하려면 제가 막 우겨가지고 하자 그러면 싫겠지만 따라 올수는 있어요. 또 선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뭐죠?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면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다른 예산 해가지고 막 밀어붙여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고 밀어붙여서 하면 해낼 수 있을지 몰라요. 교회하고 선교회 합해가지고 천만 원씩 나눠가지고 하자 이렇게 했더라면 할 수 있을 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는 내 방법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되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서 하나님이 운행하신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돈은 2천만 원 필요한데 8만 7천원이 나왔으니 이게 답답할 얘기죠. 물론 초기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